

#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 터”

**광주 찾은 우원식 의장, 민주묘지 참배 후 개헌 약속**  
광주시·전국 단체, 25일 국회서 개헌촉구 결의대회  
전국 231개 기관·단체 참여 ‘개헌 국민추진위’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참배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방면록에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오월령에 현화와 묵념을 올렸다.

우 의장은 “5·18의 희생과 극복이 있어서 12·3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숨을 일으신 많은 열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최종 완성은 헌법 개정 후 5·18 정신을 헌법에 담고 77조에

있는 계엄의 요건 절차를 수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권만 갖고 있는데 사전 승인권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과 기본권

강화 등 개헌으로 내란 극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참배 뒤에는 12·29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유족과 만나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후 망령원원묘지로 이동해 이한열 열

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의 묘를 참배했다. 우 의장은 배 여사의 묘비를 손으로 닦은 후 기도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일으신 많은 열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민주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 관

련자’로 남아있다”며 “그분들 덕분에 대한

민국이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경제가 성장해 선진국이 됐는데 목숨 잃은 분들이 유공자가 아닌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켜 꼭 우리 민주열사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자는 약속을 배은심 어머니와 했었다”며 “제가 꼭 할 일이다. 올해 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목숨을 잃고 실종된 많은 분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참배 후 전남대학교로 이동,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오월단체, 광주시, 전남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와 전국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기조발언, 지지연설,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배하고 있다.

한경

민주당 당론으로 밤의한 광주전남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일”이라며 “용 의원이 행안위 위원이기에 상임위 의결을 위

해서는 협조가 필요해 (발의자 서명이) 부득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통합을 가장 먼저 주

장하며 개별 법안까지 밤의했던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김 의원이

특별법안 밤의를 위한 시도지사·국회의

원 간담회에서 “당론 밤의 법 외에 개별법

안 밤의는 없다”고 말한 당시자이기에 황

당하다”며 “다시 분열을 초래하는 법안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도 이날

‘전남광주특별법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단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윤복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공법 3단체장,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 등 총 13명이 참석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찬성하는 국민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

됐으며, 현재까지 231개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김원이, 기본소득당 통합특별법에 서명 ‘파장’

‘주 청사 무안에…’ 조항 알고도 참여… 정준호,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4일 기본 소득당이 밤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 치를 위한 특별법(아하 특별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특별법에 ‘주 청사’를 무안에 둔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담론으로 대표발의한 한마디며 “책임지는 아당답게 5·18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

주분권 선도로 전남·광주 도약을 견인하는 쇄방선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급박하게 회의가 진행된 만큼 내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의 법안도 상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는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자 광주전남통합추진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목포)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데다. 또 특별법 주 청사는

당부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밤의한 광주전남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일”이라며 “용 의원이 행안위 위원이기에 상임위 의결을 위

해서는 협조가 필요해 (발의자 서명이) 부득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통합을 가장 먼저 주

장하며 개별 법안까지 밤의했던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김 의원이

특별법안 밤의를 위한 시도지사·국회의

원 간담회에서 “당론 밤의 법 외에 개별법

안 밤의는 없다”고 말한 당시자이기에 황

당하다”며 “다시 분열을 초래하는 법안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도 이날

‘전남광주특별법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었다.

이성오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26곳 추진

전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주민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둔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26곳을 선정하고, 정착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총 1500만 원

이 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교류·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전남도의 대표적 정착지원 정책으로, 2019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총 1500만 원

이 지원되며, 꽃길·쉼터 조성, 마을 공동 행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모든 사업은 귀농어귀촌 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반 조성 사업비는 기준보다 줄여 1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주민 교류와 공동

체 활동에 쓰이는 응회사업비를 500만 원으로 확대해 공동체 활동을 강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송옹 고흥 석촌마을이 장은 “귀농어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자연

스럽게 어울리면서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이병훈,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

9일 5·18 민주광장서 출마선언… 미래비전 제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사진)이 4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임기 시작 이후 정책 토론회, 현장 방문, 간담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펼쳐 진행하며 호남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광폭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30대에 광양군수로 재직하며 동광양시와 광양군 통합을 성사시킨 바 있고, 전남도에서 주요 행정 요직을 두루 거치며 고흥 우주센터 유치, 여수 세계박람회(EXPO) 유치 등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에

는 광주형 일자리(현대자동차) 유치를 이끌었고, 초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으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립을 주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대안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민생과 국가 문화정책을 현장에서 이끈 바 있다.

한편, 이병훈 예비후보는 오는 9일 5·18 민주광장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남·광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출마 선언

광주역 AI·모빌리티 집적단지 등 구정 방향 제시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사진)이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부대변인은 4일 광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로 일하고, 문화로 즐기고, 복지로 행복한 도시, 더불어 함께 도약하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준비되고 겸증된 후보”라고 명명하며 정체된 북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전장을 예고했다.

문 부대변인은 “지금 북구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성장 동력이 멈춰 서 있는 골든타임 앞에 있다”며 “지금 북구에게 필요한 것은 책상에 앉아 규정을 따지는 관리자가 아니라 예산을 갖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밭을 뛰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맡고 호구가 아닌 실력으로 현장에서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브리핑

## 광주시, 민원서비스 2년 연속 ‘최고’

###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고등급… 장관 표창·재정 특전 획득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

해 특광역시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재정 특전을 받았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광주시를 포함한 32개 기관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광주시를 포함한 32개 기관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광주시를 포함한 32개 기관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광주시를 포함한 32개 기관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광주시를 포함한 32개 기관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광주시를 포함한 32개 기관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광주시를 포함한 32개 기관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광주시를 포함한 32개 기관이